

제356회국회  
(임시회)

# 국 방 위 원 회 회 의 록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8년2월20일(화)

장 소 국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계속)
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계속)
3.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4.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계속)
5.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계속)
6.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7.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8. 업무보고
  - 가. 국방부 소관
  - 나. 병무청 소관
  - 다. 방위사업청 소관

## 상정된 안건

1.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박준영·정인화·윤영일·최운열·김관영·천정배·최도자·이동섭·김광수·이용주·송기석·박선숙·오제세·박지원·조배숙·김한정·채이배·김경진·이태규·박영선·이찬열·김삼화·오세정·김종희·김수민·최경환(국)·최명길·김성식·신용현·강창일·김상희·노웅래·장정숙·권은희·손금주·정동영·이상돈·황주홍·김중로·추혜선·김종민·심재권·유성엽·장병완·박주선 의원 발의)(계속) ..... 3
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강훈식·권미혁·권은희·기동민·김경수·김경진·김경협·김관영·김광수·김동철·김병욱·김삼화·김성식·김수민·김종대·김종희·김중로·김한정·김해영·김현권·남인순·노웅래·노희찬·민병두·민홍철·박광온·박선숙·박영선·박용진·박주민·박주선·박주현·박준영·박지원·박홍근·서영교·설훈·소병훈·손금주·송기석·송옥주·신경민·신용현·안민석·오세정·오영훈·오제세·원혜영·위성곤·유성엽·유은혜·윤관석·윤소하·윤영일·윤후덕·이훈·이동섭·이상돈·이언주·이용득·이용주·이용호·이원욱·이인영·이찬열·이태규·이해찬·인재근·장병완·장정숙·정동영·정성호·정양식·정인화·정춘숙·조배숙·조승래·주승용·채이배·천정배·최도자·최명길·최인호·추혜선·하태경·황희·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3
3.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강병원·강창일·강훈식·고용진·권미혁·권철승·금대섭·기동민·김경수·김경협·김두관·김민기·김병관·김병기·김병욱·김부겸·김상희·김성수·김영주·김영진·김영춘·김영호·김정우·김종민·김진표·김철민·김태년·김한정·김해영·김현권·김현미·남인순·노웅래·도종환·문희상·민병두·민홍철·박경미·박광온·박남춘·박범계·박병석·박영선·박완주·박용진·박재호·박정·

박주민 · 박찬대 · 박홍근 · 백재현 · 백혜련 · 변재일 · 서형수 · 설훈 · 소병훈 · 손혜원 · 송기현 · 송영길 · 송옥주 · 신경민 · 신동근 · 신창현 · 심기준 · 심재권 · 안규백 · 안민석 · 안호영 · 양승조 · 어기구 · 오영훈 · 오제세 · 이상호 · 우원식 · 원혜영 · 위성곤 · 유동수 · 유승희 · 유은혜 · 윤관석 · 윤호중 · 윤후덕 · 이상민 · 이석현 · 이수혁 · 이용득 · 이원욱 · 이인영 · 이재정 · 이종걸 · 이철희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찬 · 이훈 · 인재근 · 임종성 · 전재수 · 전해철 · 전현희 · 전해숙 · 정성호 · 정재호 · 정춘숙 · 제윤경 · 조승래 · 조응천 · 조정식 · 진선미 · 진영 · 최운열 · 최인호 · 추미애 · 표창원 · 한정애 · 홍영표 · 홍의락 · 홍익표 · 황희 의원 발의)(계속) ..... 3

4.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 · 천정배 · 이동섭 · 박정 · 박준영 · 윤영일 · 송기석 · 윤소하 · 위성곤 · 최경환(국) · 주승용 · 원혜영 · 이원욱 · 박홍근 · 김경진 · 김중로 · 박주선 · 장병완 · 이용주 · 정인화 · 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 4

5.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 · 권은희 · 김관영 · 손금주 · 오신환 · 이언주 · 이찬열 · 이해훈 · 정병국 · 정운천 의원 발의)(계속) ..... 4

6.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 4

7.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 · 기동민 · 김병기 · 김병욱 · 김성수 · 김종대 · 노웅래 · 박남춘 · 박용진 · 박정 · 서영교 · 소병훈 · 신동근 · 안규백 · 위성곤 · 윤관석 · 이동섭 · 이상돈 · 이종걸 · 이해찬 · 인재근 · 채이배 · 추혜선 · 한정애 · 홍의락 · 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4

8. 업무보고 ..... 10

가. 국방부 소관

나. 병무청 소관

다. 방위사업청 소관

1.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 · 박준영 · 정인화 · 윤영일 · 최운열 · 김관영 · 천정배 · 최도자 · 이동섭 · 김광수 · 이용주 · 송기석 · 박선숙 · 오제세 · 박지원 · 조배숙 · 김한정 · 채이배 · 김경진 · 이태규 · 박영선 · 이찬열 · 김삼화 · 오세정 · 김종희 · 김수민 · 최경환(국) · 최명길 · 김성식 · 신용현 · 강창일 · 김상희 · 노웅래 · 장정숙 · 권은희 · 손금주 · 정동영 · 이상돈 · 황주홍 · 김중로 · 추혜선 · 김종민 · 심재권 · 유성엽 · 장병완 · 박주선 의원 발의)(계속) ..... 28

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 · 강훈식 · 권미혁 · 권은희 · 기동민 · 김경수 · 김경진 · 김경협 · 김관영 · 김광수 · 김동철 · 김병욱 · 김삼화 · 김성식 · 김수민 · 김종대 · 김종희 · 김중로 · 김한정 · 김해영 · 김현권 · 남인순 · 노웅래 · 노희찬 · 민병두 · 민홍철 · 박광운 · 박선숙 · 박영선 · 박용진 · 박주민 · 박주선 · 박주현 · 박준영 · 박지원 · 박홍근 · 서영교 · 설훈 · 소병훈 · 손금주 · 송기석 · 송옥주 · 신경민 · 신용현 · 안민석 · 오세정 · 오영훈 · 오제세 · 원혜영 · 위성곤 · 유성엽 · 유은혜 · 윤관석 · 윤소하 · 윤영일 · 윤후덕 · 이훈 · 이동섭 · 이상돈 · 이언주 · 이용득 · 이용주 · 이용호 · 이원욱 · 이인영 · 이찬열 · 이태규 · 이해찬 · 인재근 · 장병완 · 장정숙 · 정동영 · 정성호 · 정양식 · 정인화 · 정춘숙 · 조배숙 · 조승래 · 주승용 · 채이배 · 천정배 · 최도자 · 최명길 · 최인호 · 추혜선 · 하태경 · 황희 · 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28

3.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 · 강병원 · 강창일 · 강훈식 · 고용진 · 권미혁 · 권철승 · 금태섭 · 기동민 · 김경수 · 김경협 · 김두관 · 김민기 · 김병관 · 김병기 · 김병욱 · 김부겸 · 김상희 · 김성수 · 김영주 · 김영진 · 김영춘 · 김영호 · 김정우 · 김종민 · 김진표 · 김철민 · 김태년 · 김한정 · 김해영 · 김현권 · 김현미 · 남인순 · 노웅래 · 도종환 · 문희상 · 민병두 · 민홍철 · 박경미 · 박광운 · 박남춘 · 박범계 · 박병석 · 박영선 · 박완주 · 박용진 · 박재호 · 박정 · 박주민 · 박찬대 · 박홍근 · 백재현 · 백혜련 · 변재일 · 서형수 · 설훈 · 소병훈 · 손혜원 · 송기현 · 송영길 · 송옥주 · 신경민 · 신동근 · 신창현 · 심기준 · 심재권 · 안규백 · 안민석 · 안호영 · 양승조 · 어기구 · 오영훈 · 오제세 · 이상호 · 우원식 · 원혜영 · 위성곤 · 유동수 · 유승희 · 유은혜 · 윤관석 · 윤호중 ·

윤후덕 · 이상민 · 이석현 · 이수혁 · 이용득 · 이원욱 · 이인영 · 이재정 · 이종걸 · 이철희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찬 · 이훈 · 인재근 · 임종성 · 전재수 · 전해철 · 전현희 · 전해숙 · 정성호 · 정재호 · 정춘숙 · 제윤경 · 조승래 · 조응천 · 조정식 · 진선미 · 진영 · 최운열 · 최인호 · 추미애 · 표창원 · 한정애 · 홍영표 · 홍의락 · 홍익표 · 황희 의원 발의)(계속) ..... 28

4.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 · 천정배 · 이동섭 · 박정 · 박준영 · 윤영일 · 송기석 · 윤소하 · 위성곤 · 최경환(국) · 주승용 · 원혜영 · 이원욱 · 박홍근 · 김경진 · 김중로 · 박주선 · 장병완 · 이용주 · 정인화 · 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 28

5.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 · 권은희 · 김관영 · 손금주 · 오신환 · 이언주 · 이찬열 · 이혜훈 · 정병국 · 정운천 의원 발의)(계속) ..... 28

6.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계속) ..... 28

8. 업무보고(계속) ..... 29

가. 국방부 소관  
나. 병무청 소관  
다. 방위사업청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학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법률안을 심사한 후에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 · 김중로 · 김한정 · 김해영 · 김현권 · 남인순 · 노웅래 · 노회찬 · 민병두 · 민홍철 · 박광온 · 박선숙 · 박영선 · 박용진 · 박주민 · 박주선 · 박주현 · 박준영 · 박지원 · 박홍근 · 서영교 · 설훈 · 소병훈 · 손금주 · 송기석 · 송옥주 · 신경민 · 신용현 · 안민석 · 오세정 · 오영훈 · 오제세 · 원혜영 · 위성곤 · 유성엽 · 유은혜 · 윤관석 · 윤소하 · 윤영일 · 윤후덕 · 이훈 · 이동섭 · 이상돈 · 이언주 · 이용득 · 이용주 · 이용호 · 이원욱 · 이인영 · 이찬열 · 이태규 · 이해찬 · 인재근 · 장병완 · 장정숙 · 정동영 · 정성호 · 정양석 · 정인화 · 정춘숙 · 조배숙 · 조승래 · 주승용 · 채이배 · 천정배 · 최도자 · 최명길 · 최인호 · 추혜선 · 하태경 · 황희 · 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1.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 · 박준영 · 정인화 · 윤영일 · 최운열 · 김관영 · 천정배 · 최도자 · 이동섭 · 김광수 · 이용주 · 송기석 · 박선숙 · 오제세 · 박지원 · 조배숙 · 김한정 · 채이배 · 김경진 · 이태규 · 박영선 · 이찬열 · 김삼화 · 오세정 · 김중회 · 김수민 · 최경환(국) · 최명길 · 김성식 · 신용현 · 강창일 · 김상희 · 노웅래 · 장정숙 · 권은희 · 손금주 · 정동영 · 이상돈 · 황주홍 · 김중로 · 추혜선 · 김종민 · 심재권 · 유성엽 · 장병완 · 박주선 의원 발의)(계속)

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 · 강훈식 · 권미혁 · 권은희 · 기동민 · 김경수 · 김경진 · 김경협 · 김관영 · 김광수 · 김동철 · 김병욱 · 김삼화 · 김성식 · 김수민 · 김중대 · 김중

3.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 · 강병원 · 강창일 · 강훈식 · 고용진 · 권미혁 · 권칠승 · 금태섭 · 기동민 · 김경수 · 김경협 · 김두관 · 김민기 · 김병관 · 김병기 · 김병욱 · 김부겸 · 김상희 · 김성수 · 김영주 · 김영진 · 김영춘 · 김영호 · 김정우 · 김종민 · 김진표 · 김철민 · 김태년 · 김한정 · 김해영 · 김현권 · 김현미 · 남인순 · 노웅래 · 도종환 · 문희상 · 민병두 · 민홍철 · 박경미 · 박광온 · 박남춘 · 박범계 · 박병석 · 박영선 · 박완주 · 박용진 · 박재호 · 박정 · 박주민 · 박찬대 · 박홍근 · 백재현 · 백혜련 · 변재일 · 서형수 · 설훈 · 소병훈 · 손혜원 · 송기현 · 송영길 · 송옥주 · 신경민 · 신동근 · 신창현 · 심기준 · 심재권 · 안규

백·안민석·안호영·양승조·어기구·오영훈·오제세·우상호·우원식·원혜영·위성곤·유동수·유승희·유은혜·윤관석·윤호중·윤후덕·이상민·이석현·이수혁·이용득·이원욱·이인영·이재정·이종걸·이철희·이춘석·이학영·이해찬·이훈·인재근·임종성·전재수·전해철·전현희·전혜숙·정성호·정재호·정춘숙·제윤경·조승래·조용천·조정식·진선미·진영·최운열·최인호·추미애·표창원·한정애·홍영표·홍의락·홍익표·황희 의원 발의)(계속)

**4.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천정배·이동섭·박정·박준영·윤영일·송기석·윤소하·위성곤·최경환(국)·주승용·원혜영·이원욱·박홍근·김경진·김중로·박주선·장병완·이용주·정인화·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5.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권은희·김관영·손금주·오신환·이언주·이찬열·이혜훈·정병국·정운천 의원 발의)(계속)**

**6.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7.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기동민·김병기·김병욱·김성수·김종대·노웅래·박남춘·박용진·박정·서영교·소병훈·신동근·안규백·위성곤·윤관석·이동섭·이상돈·이종걸·이해찬·인재근·채이배·추혜선·한정애·홍의락·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위원장 김학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총 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대수 법률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법안심사소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법률안심사소위원장 경대수 위원입니다.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에 대한 우리 소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특별법안은 기존에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과 안 제2조의 진상규명 범위 부분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제정안 제2조에서는 북한군 개입 여부 및 입을

위한 행진곡 등과 관련한 날조 의혹 사건도 진상규명 범위에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 중인 대안에서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진상규명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들 사항을 별도로 추가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동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경대수 소위원장님, 김병기 위원님, 김중로 위원님, 백승주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이종명 위원님, 이철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순서에 관계없이 신청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일정 제7항에 관해서 토론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를 바꿔서 의사일정 제7항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의 수정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장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총칙 관련 규정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제2장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관련 규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제3장 제15조부터 제33조까지 진정 및 조사 관련 규정에 대하여 의

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이것……

○**위원장 김학용** 지난번에 다 한 건데 회의가 바뀌었기 때문에 요식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린 겁니다.

○**이철희 위원** 고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위원장 김학용** 예, 없습니다.

계속해서 제4장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보칙 관련 규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제5장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벌칙 관련 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끝으로 부칙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18 관련 법안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순서에 관계없이 신청에 따라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주 위원** 먼저 2월 6일 날 공청회에서 동료 위원과 제가 수정 제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법안소위원회 심의에서 제출된 대안에 대해서 수정을 제의합니다.

먼저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현재 위원회 상임위원의 숫자를 좀 줄이는 안과 위원의 추천 권한을 변경하는 안입니다.

현재의 위원회는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최근에 제정된 사회적 참사법과 같이 위원회 구성을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제의합니다. 또 진실을 규명하고 회의의 효율성

을 위하여 전체 인원을 9명으로 하고 추천을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구성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으로 하도록 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사회적 참사법의 여러 가지 구성의 원리를 준용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제안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조사 결과에 대해서 사회적 승복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청회 때 제가 강조하였고 많은 동료 위원들이, 여당 위원들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학용**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호 위원** 지금 이 법안은 법안소위에서 협의해서 통과된 법안이 지금 올라온 게 아닌가요?

○**서영교 위원** 맞습니다.

○**우상호 위원** 그런데 여기서 개별적인 위원이 위원 정수 문제 갖고 다시 얘기를 시작하시면 숫자를 몇 명으로 할 것이냐,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얘기가 난상토론이 될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이것은 이 법안의 통과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회적 참사법과 연관시키시는데 사회적 참사법은 그 조사 범위와 대상 중에 대통령 활동 혹은 해수부의 활동 등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정부의 추천권을 제약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직접 상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18민주화운동은 현재 정부나 청와대에 직접 당사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 일어났던 일에 대한 과거사 진상 규명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참사법의 위원 구성 원칙과 동일하게 가지고 가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론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제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가 장기화되면 여기서 어디 몇 명으로 할 것이냐, 어디 몇 명으로 할 것이냐라는 그런 난상토론을 하게 되는 게 효율적인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겠는가 싶어서 법안소위에서 토론해서 합의에 의해서 통과되었으면 법안소위의 내용을 존중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제가 위원장으로서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게 맞고요. 공청회를 거쳐서 전체회의에서 통과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지난번 공청회 때 5·18 관련해서 두 가지가 논의됐습니다. 첫 번째는 기왕 하는 거니까 어차피 국민적인 의혹이 없도록 일부의 의견이지만 북한군 개입 여부도 하나 추가를 하자 이런 것이 공청회에서 제기가 됐었고 또 하나는 위원정수 문제 얘기가 나와서 어차피 그렇다고 하면 현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위원정수에 있어서는 융통성을 가지고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전체 공청회에서 논의가 돼서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아마 백승주 위원님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소위에서 논의가 됐더라도 전체 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만큼 지금 백승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수정의견도 포함해서 토론을 해서 오늘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결론은 위원님들의 몫이니 오늘 충분히 토론해서 정말 현명한 결과가 도출되기를 위원장으로서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소위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요

1980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1980년도에 5·18이 있었다고 해서 1983년도에 대학 입학하고 거기서 화장실에 붙어 있던 쪽지를 보고 ‘사실일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조금씩 조금씩 이야기하다가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서 물고문도 당하고 그리고 당시 일본이 만든 서대문구치소에 가서 폭력적인 군화발에 짓밟히기도 하고 징벌방도 갔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제가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밝혀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당해 갔지만 이런 사람들은 참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했던 5·18 현장이 있었습니다. 5·18 현장

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아직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억울하게 죽어 간 사람들,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 그리고 저는 작년에 제가 5·18 유공자라고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는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언론 보도는 할 수 없이 제가 법적 소송을 걸어서 올해에서야 그들이 실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물고문도 당하고 구치소도 가고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작년에 또다시 그런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 개인에게는 어마어마한 일들이—저는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5·18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소위에서 이 부분만큼은 한번 더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역사적으로 짚고 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야 모두가 합의 보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공청회를 하자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공청회를 하자는 이야기를 하실 때는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 공청회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이 조사위원을 여야 동수로 하자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야 동수로 한 예가 조금 전 이상호 위원님 말씀처럼 사회적 참사법이었습니다. 그것도 계속 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를 열지 않아서 타협안으로 나왔고 말씀처럼 당시에 대통령의 7시간 그리고 해수부의 문제까지 봐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 추천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지껏 항상 위원회를 구성하면 만들어져 왔던 구성의 요건, 이 요건에 이제 갑자기 반기를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더 돌아봐야 하는 것은 과연 5·18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가, 1980년도 군부정권에 의해서 그 정권이 5·18을 일으켰고 그리고 우리는 그 5·18을 이제 새로 규명하자고 하는데 그 군부정권의 뿌리가 어디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지도 한번 살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무슨 뜻인지도 이해는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된다면 5·18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은 하지 말자는 그런 취지 아닌가 이렇게 봐볼 수가 없고.

도대체, 우리가 정치인의 입장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입장을 보십시오. 당사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떤 고통을 겪고 그리고 누구인지 모

르게 사라져 간 그 과정이 국가에 의해서 개입된 억압과 총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 구성 그리고 오히려 북한군 개입 여부, 저는 그 뜻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지금 북한군 개입 여부에 방점을 찍게 되면 주객이 전도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모든 것 다 정리하고 위원장님께도 그렇고 우리 소위에서 충분히 축조 심사해서 논의한 대로 그리고 모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는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주 위원** 소위원회가 있고 전체회의가 있는데 소위원회가 만든 결론대로 전체회의가 따라 간다면 전체회의를 열 필요가 없습니다. 소위원회 의결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통과하면 되고, 소위원회의 의견이 미진한 것을 전체회의를 열어서 충분히 토론을 하자는 의미에서 전체회의의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소위원회에서 통과됐으니 그대로 가자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계속 관철된다면 이 자리에 제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공청회 열렸을 때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할 때 많은 동료 위원들, 제가 오늘 조금 전에 속기록을 뒤져 봤습니다. 지금 여당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법률 제정 정신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 법의 구성 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이 법률안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면 그것은 토론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하고 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이 문제가 왜 필요한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저는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이 문제가 다시 조사되고 조사되고 하는 이런 반복적인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위원 숫자에 있어서 조금 조정을 요구했었고, 지금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여기 많은 세대의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가졌고 그 진실을 규명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저 역시, 5월 17일 당시에 정부 조치는 계엄 확대 조치였습니다. 계엄 확대 조치를 할 때 저도 부산시 중심가에서 동료들과 계엄 확대 반대 시위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진실을 규명하기를 원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효율성과 여러 가지 승복의 조건을 만들어 가는 차원에서 구성 위원의 숫자를 효과적으로 조정하자는 본 위원의 안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들이 동의하는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토론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성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또 약간의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5·18 민주화법을 반대하는 의견으로 자꾸 이렇게 하면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학용** 먼저 순서대로 이철희 위원님 그다음에 이종명 위원님 그다음에 우상호 위원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저도 반대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청회 관련해서 시간이 상당히 지연됐고 또 이 문제 갖고 지연이 될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 점도 양지를, 서로가 역지사지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법안소위가, 저는 초선입니다만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이 되면 대체토론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의견을 내고 그것을 가지고 법안소위, 여야로 구성이 되잖아요. 여야 위원들이 참여하는 법안소위에서 합의안을 만들어 내고 전체회의에 다시 넘어와서 의결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그런 절차를 충실히 준수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청회가 없었다는 지적을 해서 그렇다면 그것 하고 가자 이렇게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법안소위가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한 내용을 가지고 합의안을 만들었다, 여야 합의안을 만들었다는 점을 새삼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그동안 국회를 운영해 온 방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위 합의안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문구들, 특정 조항을 문제 삼아서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좀 과도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다.

또 하나,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이 법안이 합의하고 있는 안은 통상적인 안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특위를 구성할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완전히 새로운 룰을 적용해서 바꾸자는 게 아니라 으레 하던 대로 해 왔던 겁니다. 이것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 구성되었던 특위도 다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의 관례와 전통을 존중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승복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걸 저는 좀 듣기 거북합니다. 승복 안 한 쪽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5·18과 광주·호남에 계신 분들이 피해자로서 승복을 안 한 거지 언제 가해자가 승복 안 했습니까? 그런데 새삼스럽게 지금 가해자 쪽에서 계셨던 분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승복 운운하는 것은 저는 앞뒤가 뒤바뀐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복을 진짜 제대로 하게 만들려면 심하게 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야 구분을 나눠서 한다면 여당 추천이 훨씬 많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지금 피해자 쪽에서 승복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승복이라는 문제를 거론하시더라도 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회적 참사법을 예로 드는데 저는 그것도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것 하나는 여기 국방위를 보시면 비교섭단체 위원들이 계십니다. 두 분이나 계십니다. 전체 우리가 17명인가요? 위원장님 빼면 16명인데 두 분 계시고 그다음에 바른미래당도 두 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국방위만 놓고 보면 교섭단체에 계시다고 해서 거기는 추천권을 갖고 두 명이나 되는 비교섭단체가 추천권을 못 갖는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정신이라는 게 비교섭단체 이른바 무소속 의원들에게도 기회를 주자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각종 특위를 구성할 때도 대개 비교섭단체를 넣습니다. 그게 우리 국회가 일해 온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방식, 저는 원안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원안에는 여당이 아닌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4명입니다. 비교섭단체도 추천권을 일부 행사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백승주 위원님이 새로 대안으로 제시한 안에는 그게 짝 빠져 있습니다. 비교섭단체는 완

전히 무시당하고 있거든요. 이 점도 저는 국회 정신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정 합의가 안 되면 저는 표결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명 위원** 이종명 위원입니다.

이번 특별법을 제안한 여러 의원들 의견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정말 심도 깊게 토의를 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5·18 관련해서 많은 위원회도 구성됐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지만 법적 효력이 명확하지 않은 그런 활동이었기 때문에 이번 이 법안을 통해서 법적 효력을 가진 우리 사회 국민들의 통합과 화해의 장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까지 가해자·피해자 이렇게 하는데 누가 가해자인지 누가 피해자인지 또 일부는 거기서 소외되고 왜곡되고 했던 이런 분들까지도 다 이번 법안을 통해서 정확하게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법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18 관련 이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는 상반되는 주장을 똑같이 들어 보고 똑같이 판단해서 한번 명확하게 규명을 하자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원회 구성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소위에 참석을 해서 소위에서 심사를 했지만 지난번 공청회를 통해서 진술인들 또 위원님들 얘기를 다 듣고 그때 나왔던 이 위원회 구성의 조정에 대해서 그때 진술인들이나 여야 위원님들이 전부 다 공감을 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백승주 위원님의 안을 정말 심도 깊게 한번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좀 전에 서영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이 법안의 최초 초안을 보면 북한군 개입의 어떤 날조, 조작 이런 것들을 조사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조사하려면 규명 여부를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공청회 때 제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를 규명 범위에 넣자 그래서 규명 범위가 6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6항에다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



한군 개입 여부'를 넣고 그 6항은 미뤄서 7항으로 하자 하는 것을 그때 당시 진술인들도 긍정적으로 수용했고 여기 있는 존경하는 이철희 간사님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이번 이 대안에는 그렇게 두 가지안을…… 소위에서 넘어와서 했지만 공청회에서 충분히 언급을 하고 제시했던 만큼 그 항은 규명범위를 넣고 또 한 가지 위원회 구성도 충분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용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호 위원 토론과정을 통해서 야당 위원님들도 5·18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을 진상규명하자는 의지가 있다는 것은 확인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이 문제가 되게 예민한 문제니까 좀 더 신중하게 위원 구성을 하자 이런 취지로 들립니다. 다만 국회에서 만드는 위원회를 그때그때의 사정에 따라서 위원 구성을 전부 달리하기 시작하면 모든 상임위에서 위원 구성 문제를 놓고 다투게 됩니다. 국회의 오랜 관례로 정착되어 온 것은, 위원 구성 문제에 있어서 적실성에 대한 논쟁이 각 상임위마다 위원회를 만들 때마다 매번 있었지만 지금 이 정도가 관례로 죽 정해져 온 몇십년간의 관례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그러나 소위에서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종합해서 다시 결론을 내린 것인데, 물론 전체위에서 위원님 개개인이 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본인의 주장을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결론을 어떻게 내릴 건가에 대해 절차적으로 문제를 본다면 어느 한 분이 문제를 제기한다고 그래서 얘기를 원점으로 다 돌리면 또 법안소위가 무력화되는 과정상의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가 문제를 지적하시는 선에서 끝날 문제인지 아니면 그 문제를 받아주지 않는 한 안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의사를 명확히 해 주셔야 의사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한두 분이 그냥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본인들의 의사를 밝히는 수준에서 끝내는 것이라면 듣고 처리하시거나 정 안 되겠다고 하면, 기록을 남기겠다고 표결 처리해서 두 분은 반대했다 이렇게 남기는 것도 방법인데, 이게 야당 전체의 의견이면 저는 이 문제는 간사 간 협의 다시 시작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의사진행을 어떻게 하

실 건지 분명히 정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취지 문제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다만 결론을 어떻게 내릴 건가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절차적인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용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저는 대안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잘 마련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법안의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2항에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4명 이렇게 돼 있는 게 그동안의 국회의 규칙에 상당히 부합하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수정안에서 비교섭단체라는 표현이 빠졌을 때 국회 운영에 대한 비례성이라는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5당 체제하에서 비교섭단체 비중이 상당한 비중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 국회 체제에서 국고보조금이라든지 또는 상임위 의석 배분이라든지 대정부질문 의원 배정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소수의 목소리가 보호되고 비교섭단체 발언권이 보장되는 이런 게 국회 운영의 모든 영역에서 관철되고 있는데, 수정안에서 만약에 비교섭단체를 포함시키는 조항이 사라지게 되면 이것은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상당 부분 새로운 논의가 다시 재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어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 당부드립니다. 이 부분은 여야 모두 우리 위원회 전체에 제가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는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지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자 하는 데는 우리 위원회에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번 진상규명을 했지만 정말 이번이 마지막 진상 규명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고 또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저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모든 진상규명을 다 하는데 있어서 공청회 때 나온 의견이 소수의 의견이지만 북한군 개입여부에 관해서도 이번 기회

에 아예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밝히는 것이 좋다, 진술인들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저희 위원들도 그런 공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 위원 문제에 대해서도 이왕이면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이야기가 오고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진행해야 될 안건들도 많고 업무보고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축조심사를 들어가면 말씀하신 것처럼 원활한 회의 진행이 어렵고 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여야 간에 합의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양당 간사님들과 위원님들 합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난 후에 결론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정진석 위원 그냥 간사님들 협의하시고 회의는 진행하면 어때요? 간사님들 나가셔서 상의하시고 회의는 회의대로 진행합시다.

○위원장 김학용 회의를 진행하는 게 맞는데 법안을 하고서 업무보고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할 회의 진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18 법안과 관련해서는 간사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회의 말미에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8. 업무보고

### 가. 국방부 소관

### 나. 병무청 소관

### 다. 방위사업청 소관

○위원장 김학용 의사일정 제8항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순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설 명절 연휴와 한창 진행 중인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 긴장완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평창올림픽 그리고 패럴림픽까지 성황리에 끝나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도 우리 군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랜만에 남북 화해모드가 조성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하나 그동안 북한이 돌발적으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했던 여러 차례 사례 등을 감안해 보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또 정부는 방심하지 말고 유사시 상황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하신 국방부장관과 병무청장 그리고 방위사업청장은 물론 모든 군 장병과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고 빈틈없는 국가안보태세를 갖춰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영무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고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국방정책 방향과 주요 국방 현안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방부는 2018년도에는 ‘혁신하는 국방,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을 적극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한국형 3축체계 개념을 보완하고 전력 확보를 가속화하여 북핵 및 WMD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발전시키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전환을 위해 우리 군의 핵심 군사 능력을 조기에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방개혁 2.0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강력한 3축체계에 기반한 신 작전수행 개념을 정립하고 국방인력구조를 작전·전투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방위사업 비리를 근절하고 기술과 품질 중심의 방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방위산업을 혁신하는 한편 병 봉급 인상 등 복무 여건 개선과 함께 장병 인권 보호를 위한 군 사법개혁을 추진하여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군은 평창동계올림픽이 가장 안전하고 성공적인 평화 올림픽으로 마무리되도록 세계적인 축제로 기억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방 업무보고에 앞서 국방부 신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영모 기획관리관입니다.

다음 대북정책관 박인호 소장입니다.

박승홍 군사시설기획관입니다.

전력정책관 권혁민 소장입니다.

국방운영개혁추진관 양용모 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국방 업무보고는 여석주 국방정책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용 여 실장님, 변화된 것 위주로 핵심만 보고해 주세요.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여석주 여석주 국방정책실장입니다.

국방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눠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 국방정책 방향으로부터 주요 국방 현안 순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8년 국방정책 방향은 방금 전 장관 보고드릴 바와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첫 번째 중점은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현 상황과 관련하여 질적으로 강화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북한의 추가 핵실험

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주체 불분명한 도발 및 테러에 대한 대비태세와 기습도발 대비 감시 및 즉응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군사적 지원을 계속하면서 실전적 연합 연습·훈련을 통해 전면전 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둘째, 북핵·WMD 위협 억제 및 대응입니다.

신 작전수행 개념 구현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개념을 보완하고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제 및 대응 능력 확보를 위해 최우선 예산 반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미동맹의 미사일 대응 능력과 태세를 발전시키고 북한의 핵·화학·생물 위협 대응과 관련한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셋째, 실전적 교육훈련 및 정신전력 강화입니다.

학교교육 최적화를 통해 정예화된 장병을 양성하면서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군 과학화 훈련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넷째, 예비전력 정예화로 4월 초 육군 동원전력사령부를 창설하고 소규모 예비군훈련장을 통합하여 과학화훈련장으로 개선하며 적정 수준의 예비군 훈련 보상비 지급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입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둘째, 상호보완적인 한미동맹을 강화하겠습니다.

북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과 비핵화를 위한 한미동맹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공동으로 견인하면서 우주·사이버 협력 등 우리 국방역량 확충을 위한 동맹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통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분담 규모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다양한 동맹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셋째, 전략적 국방외교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주변국들과의 국방 교류협력을 증진해 나가면서 아세안 및 국제사회 주요국들과의 국방교류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 중점은 국방개혁 2.0 추진으로 주요 핵심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 작전수행 개념은 북한이 수도권에 대한 장사정포 공격, 아 영토에 대한 핵·미사일 공격을 포함한 전면적 도발 시 최단시간 내 최소 희생으로 전승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군은 이 같은 새로운 개념하에서 확장된 3축체계 역량을 기반으로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거부적·응징적 억제효과를 구현할 것입니다.

다음은 부대 및 인력구조 개편입니다.

우선 부대구조 개편으로 육군은 제대별 드론봇 부대 신편 등 첨단전력 보강을 통해 전투력을 강화하고 해군은 기동전대, 해병대는 해병상륙항공단, 공군은 고고도·중고도 UAV 정찰비행단을 창설할 계획입니다. 국적부대는 조직의 효율화 차원에서 개편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작전 및 전투 중심의 국방인력구조 개편을 통해 전투임무 부대는 숙련된 전투전문가로 조직을 편성하고 비전투임무 부대는 민간인력 활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위사업 개혁으로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무기체계 부실 방지를 위한 국방획득체계 개선을 하며 아울러 미래 먹거리를 위한 방산 경쟁력 및 국방 R&D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실질적 장병 복지 향상입니다.

병사들이 외부 지원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하고 전역 시 사회 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병 봉급의 연차적 인상을 추진하면서 군 급식의 질 향상과 피복 및 장구류에 대한 품질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군 경험의 대학학점 인정을 추진하고 군 복무 간 단절 없는 학업을 지원하는 등 군 복무 중 자기개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군의 양적·질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여군 보직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군 의료시스템 개편을 위해 전투임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군 의료역량을 강화하되 민·군 협력 등으로 장병에게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시 의무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시대비체제를 보강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병 인권보호를 위한 군 사법 개혁입니다.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영창제도 폐지 등 병 징계제도를 개선하고 군 법규의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 현안에 대한 외부 자문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군관사인사위원회 설치, 평시 심판관제도와 관할관 확인조치권 폐지 등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군 검찰의 군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도권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국방개혁 2.0은 4월까지 기본계획을 완성하고 이후 법령 개정 소요 판단 및 개정 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이어서 주요 국방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국방부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군 인력 및 장비를 적극 지원 중에 있습니다.

주요 지원사항으로 강원도 및 올림픽조직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성화봉송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올림픽 기간에는 대회 준비 및 지원, 경비작전 및 대테러 안전 지원을 위한 인력과 장비·물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패럴림픽 기간에도 약 4700명 수준의 인력과 장비·물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군 지원 장병들의 방한 및 휴식대책을 강구하는 등 지원 장병에 대한 지위·관심을 제고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군공항 이전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추진 중입니다. 대상 공항은 대구공항·수원공항·광주공항입니다.

향후 국방부는 대구공항은 3월 이전부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원공항은 군공항 이전에 대한 공감대 확산 후 이전후보지 선정 절차를 추진하며 광주공항은 공군의 작전성 검토 후 관계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겠습니다. 지자체와 해당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특별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영평사격장 갈등관리는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전 보장과 피해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입니다.

추진경과는 보시는 바와 같으며 향후 주한미군과 협의하여 주민 피해와 위험을 최소화하며 갈등 관리 및 대응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시스템과 제도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병무청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찬수 병무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고요. 핵심 위주로 간략히 업무보고 부탁드립니다.

○**병무청장 기찬수** 존경하는 김학용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2018년도 병무청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병무청은 지난해 국방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에 힘입어 적정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동 주관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한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우리 병무청은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을 위해 투명하고 정확한 병역판정검사와 군 소요 적정 충원, 사회복지요원 소집적체 해소에 역점을 두고 병역 이행자가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병무청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미래를 준비하는 활기찬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병역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신입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국장 권병태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병무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은 병역판정검사부터 병역 이행의 자긍심 제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병역판정검사입니다.

17년에는 3만 2000여 명의 검사를 실시하여 현역 81.6%, 보충역 13.4%를 처분하였으며 금년 계획인원은 31만 8000여 명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정확한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MRI 등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하고 정신과·내과 등에 전담의사를 증원하겠으며 인지능력검사를 개선하여 군 부적합자 선별력 향상 등 정밀 신체검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역병 입영입니다.

17년에는 22만 7000여 명이 입영하였으며 금년 계획인원은 23만 1000여 명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군의 안정적 병력 운영을 위해 입영시기, 부대별로 균형 충원하고 징·모집 연계 등 비선호시기 입영률을 향상시키게 했으며 입영시기 선택기회 확대를 진로설계를 지원하고 모집병 구비서류 간소화 등 병역의무 이행의 자율적 민원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입니다.

17년에는 계획 대비 102%인 3만 600여 명이 입영하였으며 금년 계획인원은 3만여 명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소집적체 해소대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의무자 편익 증진 등 사회복지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참여식 프로그램 운영과 복무 부실 우려자 중점 관리 등 공감형 교육과 맞춤형 복무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병력동원훈련 소집입니다.

17년에는 계획 대비 100.2%인 40만 5000여 명을 훈련시켰으며 금년 계획인원은 38만 8000여 명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유사시 대비 병력동원태세 확립을 위해 충무훈련 등을 통해 집행능력을 제고

하고 지자체 병무직원 교육 등 전시임무 수행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쪽, 병역 이행의 자긍심 제고는 보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역점 추진 사업은 취업맞춤특기병 활성화로부터 병역법 전부개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취업맞춤특기병 활성화입니다.

취업맞춤특기병은 군 복무와 취업 연계로 전투력 증강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2013년부터 3300여 명이 지원하였으며 전역자 548명 중 51.8%인 284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모집 인원을 2200명으로 증원하고 모집 범위를 해병대 기술병까지 확대하였으며 고용노동부와 국가보훈처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역자 취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업인력 지원 강화입니다.

17년에는 1만 6000여 명이 편입하였으며 금년 계획인원은 1만 8000여 명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우수 지정업체 지원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학협력업체 우선 및 보충역 편입 상위 업체에 대해 병역 배정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며 지역별 합동채용박람회 개최 및 병역일터 포털을 활용하여 청년 취업 기회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적 관심계층 병적 별도관리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지난해 법령 개정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사회적 관심계층 병적 관리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국세청 등과 협조, 3만 1000여 명의 관리대상을 파악하여 병역처분 및 이행 전 과정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병역이행 실태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병역면탈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병역이행 우수사례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병역면탈 예방·단속 강화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12년 특사경 도입 후 병역면탈 혐의자 단속 현황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사이버 면탈 조장정보를 단속하여 폐쇄 조치하고 있으며 디지털 포렌식 장비 도입 등

과학수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지능화하는 신종 수법 분야 수사 확대 등 병역면탈 범죄 혐의자에 대한 과학·기획수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쪽입니다.

병역법 전부개정입니다.

93년 이후 빈번한 개정에 따른 복잡한 체계를 개편하고 국민이 알기 쉽고 새로운 시대·환경에 맞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병역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서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8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맺음말입니다.

우리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의 효율적 관리와 적정 충원으로 군 전력 증강에 기여함은 물론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 구현으로 병역 이행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병무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방위사업청 보고 순서입니다만 정부 측에서 보고 내용 중 2018년 주요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현황 보고에 대해서는 비공개회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개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비공개회의로 전환해서 방위사업청의 비공개 보고 및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개회의로 전환을 해서 국방부, 병무청과 방위사업청에 대해서 공개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제국 방위사업청장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위사업청은 금년 한 해 동안 강도 높게 혁신을 추진하여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제도와 복잡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규제의 장벽을 과감히 철폐하여 방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한국형 3축체계 등 주요 방위력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국방 분야가 4차 산업혁명의 테스트베드(test bed) 역할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민간 부문으로 환류시켜 국가 차원의 첨단기술 개발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토대로 방위사업이 제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신입간부 및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은호 사업관리본부장입니다.

김태곤 기획조정관입니다.

김병부 방산기술통제관입니다.

김일동 방산진흥국장입니다.

계획운영부장 강천수 육군 소장입니다.

김종출 지휘정찰사업부장입니다.

항공기사업부장 김정환 공군 준장입니다.

이정용 계획지원부장입니다.

무기체계계약부장 남동우 해군 준장입니다.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장입니다.

(간부 및 출연기관장 인사)

이상으로 신입간부 및 출연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는 일반현황과 다섯 가지 주요업무를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방위사업청의 주 임무는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군수품의 적기 조달 그리고 방위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조직과 정원은 그림과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쪽입니다.

금년 예산은 방위력개선비 13조 5203억 원과 급식 피복 수리부속 등 국방부로부터 위탁받아 집행하는 전력운영비 4조 3000억을 포함하여 총 17조 8203억 원입니다.

방위력개선사업 분야별 예산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업무 중 먼저 방위사업 혁신은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와 방위사

업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방위사업개혁협의회를 구성하여 방위사업 전반에 걸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 절차를 전면 재정비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혁신 과제로는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방위사업 관리 유연성 확보, 방위사업 경쟁력 확보 등이며 과제별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실천 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내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부터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방위사업 혁신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령 제·개정 및 조직 개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5쪽입니다.

방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올해 사업 총 211개 가운데 한국형 3축체계 조기 전력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선제적인 위험 관리를 통해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김학용 위원장, 이철희 간사와 사회교대)

사업 관리를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소요와 관련해서는 범위형 ROC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소요 기획 체계를 개선하고 기술 수준과 가용재원 등 여건 변화에 맞추어 성능과 일정, 비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무기체계 특성별로 다양한 사업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법규와 절차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업무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법령 체계를 개편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복잡한 절차, 규정을 대폭 간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기관 간 상시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현안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국방 R&D를 혁신하겠습니다.

첨단기술 중심의 국방 R&D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R&D 수행 체계를 재설계하겠습니다. 특히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실패를 용인하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국방 R&D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8쪽입니다.

방위산업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먼저

기술 중심의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지체상금 부담 완화 및 성실수행인정제도 등을 통해 업체가 도전적으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방위산업의 허리를 튼튼히 하고 방산 경쟁력 강화가 수출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수출의 품목·방식·시장을 다변화하고 방산 인턴십 제도 등을 도입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받는 방위사업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상과 벌의 균형을 위해 악성·고의적 비리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고 연구개발의 시행착오 등에 대해서는 제도전의 기회를 주겠습니다.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음성적 조력자 관리를 강화하고 분석·감사·검증 기능을 최적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사기밀이 포함돼 있어 비공개회의로 진행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희** 청장님 공개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은 2018년 주요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 순서인데요. 청장님도 그렇고 비공개 보고를 요청해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관계자를 비롯해서 비밀취급인가가 없으신 분들은 퇴장해 주시고요. 회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 직원 여러분들은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06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김학용**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공개회의로 전환하겠습니다.

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국회방송이 생중계하기 때문에 준비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공개 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위원**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평창올림픽 이후에 한미연합훈련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관련한 외신 보도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아사히신문이 ‘북한이 이번 올림픽에 참가하는 데 내걸었던 조건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이 사실관계가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김진표 위원** 청와대도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국방부도 이것을 부인하는 발표를 했나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통일부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중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학용 위원장, 경대수 간사와 사회교대)

○**김진표 위원** 아까 업무보고 들어 보니까 육·해·공군 전력을 가동한 평창동계올림픽 시큐리티를 위한 경비작전을 지원하고 있는데 주한미군이 무인기 드론을 이용한 항공 정찰에서 얻어진 정보를 우리 올림픽 보안관제센터로 영상 제공해서 대테러 및 경비작전과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그런데 우리 UAV도 더 많이 띄워서 작전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도와 준다는 것만 그 신문이 크게 보도를 했는데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김진표 위원** 하여간 한미 간에 평창올림픽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정보자산의 공유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맞습니다.

○**김진표 위원**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은 이번 평창올림픽을 두고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한 것이 한미동맹의 균열을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장관이 보시기에 한미동맹의 균열로 볼 수 있는 징후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제가 매티스 장관하고 만나서 얘기가 ‘1mm도 오차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진표 위원** 한미연합훈련에 관하여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이 기회에 해 주시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한미연합훈련은 올림픽정신에 따라서 연기했다 하는 것이 한미 정부의 공통된 보도였고요. 이런 보도에 대해서 패럴림픽이 끝나고 훈련 시작 전에 그때까지는 이 기조를 유지하고 그때 공동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 발표하기로, 그 전까지는 NCND 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김진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018년 새해가 됐으니까 국방예산 편성을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7% 늘어난 43조인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최근 5년 동안 일반회계에서 약 4조 9000억, 방사청 회계에서 4조 1000억이 이월되거나 불용처리가 됐어요. 10%가 넘으니까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통상 관리들이 예산을 짤 때 보면 전례 답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정 주기로는 한번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이 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정확하십니다.

○**김진표 위원** 왜냐하면 정부가 바뀌었지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새로 편성하는 것은 금년이 처음이거든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맞습니다.

○**김진표 위원** 두 번째는 국방개혁 2.0이 아까 업무보고 보니까 포괄적으로 전 분야에 관해서 예산 소요가 전혀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우리 전략전술 개념도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준 조정, 제도개선 이런 것들이 국방개혁과 함께 연계되어서 전례 답습을 피하고 제로베이스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가 기참부장 할 때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호하게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진표 위원** 그래서 제로베이스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저는 예산에 관해서는 국방 관련 전

문가들의 중론을 모으는 것도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까 보고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국방개혁이 4월 하순경에 완성됩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완결될 겁니다.

○**김진표 위원** 완결이 되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완결 보고를 드릴 겁니다.

○**김진표 위원** 그러면 그때 국방개혁에 기초한 중기 국방예산의 큰 방향을 함께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렇게 보고를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고……

1분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대수** 1분 더 드리세요.

○**김진표 위원** 지금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 중에 소위 핵심기술이라는 블록체인 기술을 어디에 쓸 것이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미국 국방부나 세계적인 방산업체들, 록히드 마틴 같은 곳에서는 국방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시도가 연구 작업에 들어가고 상당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분산원장기술이니까 보안성 면에서는 우리도 굉장히 우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우려하는 것이 아까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해킹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런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방위산업 분야 또 병무청의 병역자원 관리 또 전반적인 국방개혁의 비밀 보존을 위해서 어떤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저나 우리 위원회에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대수** 김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위원장님, 먼저 의사진행말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대수** 그러시지요.

○**백승주 위원** 지난 12일 국방부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군 사법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회법 37조에

따르면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은 법사위원회의 소관 사항이지만 군 사법제도 개혁은 국방개혁과 무관치 않고 단순 사법행정 차원이 아니라 군 구조와 조직의 변화, 군정과 군령 행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만큼 국방위원회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서는 이 점을 고려해서 군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국방위원회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구조와 절차를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경대수** 제가 지금 회의를 대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시지요.

○**백승주 위원** 먼저 군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핵심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장병이 재판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전문 파트너에 의해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확인조치권을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확인조치권을 폐지한다고요?

○**백승주 위원** 폐지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백승주 위원**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장관님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장병 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병 참여제도와 이것은 모순되지 않나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장병 참여재판제도하고 그 앞에 말씀하신 것과고는 그것이……

○**백승주 위원** 기사 내용을 읽다 보면 그렇게 두 가지 다른 것을 같이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장관님, 이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추진해야 될 사안이고 의사진행발언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오랫동안 논의된 사안이기 때문에 국방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알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장관님,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는 시점이 군사기밀에 해당되니까? 역대 이것을 군사기밀로 분류한 적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군사기밀은 아닙니다.

○**백승주 위원** 군사기밀이 아니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백승주 위원** 그런데 연합훈련 관련 보도와 관련해서 기무사령부에 거기에 대한 보도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았는데 ‘어디서 이렇게 했는가 확인해 보라’ 하고 차관이 지시했다고 나중에 보고받았는데 보도통제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백승주 위원** 그것을 조사하게 되면 반드시 공무원과 민간인인 기자의 통화내역을 조회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불법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통화 내용을 감청하라는 지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 그것을 조사하지 않고는 통신보안 조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국방부에 있는 민간조직 감사관제도를 활용하든가 아니면 정식으로 영장을 청구해서 거기에 대한 혐의를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저희들이 개인의 정보비밀 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 기무사령부가 우리가 잘못된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엄중히 유의해서 통신보안 조치의 지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장관님, 미국하고 협의할 때 한미연합훈련 NCND는 누가 먼저 하자고 했어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저하고 매티스 장관하고 회의할 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백승주 위원** NCND를 누가 먼저 하자고 제안 했어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양측이 거의 동시에 같이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백승주 위원** 선후가 있지요. 누가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선후가 있을 텐데 장관님이 먼저 했어요, 매티스가 먼저 했어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특별한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먼저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그렇지요? 그럴 거예요.

일반 국민들은 이해는 합니다, 올림픽 기간

에…… 그러나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애매한 태도 이런 부분들이 올림픽 이후 한미동맹의 균열을 걱정하는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조속히 훈련시기를 당당하게 밝히세요. 북한 눈치를 본다고 못 밝힙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북한 눈치를 본다고 못 밝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의 태도가, 물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보지만 당당하지 않아요. 어떻게 한미연합훈련 하는 것을 쉬쉬하고 비밀로 합니까? 그런 것을 조속히, ‘미국과 약속이 있었다, 그래서 못 밝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을 당당하게 밝히고……

또 훈련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올림픽 이후의 여러 가지 다른 것을 고려해서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기간 중에 공약한 주한미군 철수 이런 문제 다시 재론될 수 있고 한미동맹 관계가 굉장히 격랑에 휩쓸릴 수 있다 이런 철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말씀에 동의는 하고 있지만 격랑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한미 공조가 더 튼튼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장관님, 북한 소주 본 적 있어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소주 본 적은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 북한 소주 마셔 본 적은 있어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마셔 보지 않았습니니다.

○백승주 위원 ‘JSA를 탈출한 병사가 소주 7병 먹고 음주운전 사고 내고 왔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심조 심사 결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방부장관 송영무 저는 보고를 받고 ‘아, 이럴 수도 있나’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백승주 위원 합심조 결과 보고 못 받았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보고받았습니다.

○백승주 위원 이것은 우리 국민에게 사상전에서 어떤 영향을 주느냐, 목숨 걸고 귀순한 병사가 술 먹고 사고 쳐 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합심조 결과가 아니라면 정정보도를 내야 되고 반박해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이것을 그냥 술 먹고 사고 쳐서 넘어온 것으로 그냥 놔둬도 되겠어요? 합심조 결과 제출해 주세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거기에는 평상시 자유가 그리워서 동경해 왔다는 것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백승주 위원 그렇지 않고요, 분명히 동아일보 보도에 보면 소주 7병을 먹고 두세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넘어왔다, 무슨 범죄자 넘어온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아니면 아니라고 밝혀야 되고요.

제가 국방부 실무자에게 물어보니까 합심조 결과 보고 못 봤다 그래요. 합심조 심사 결과를 국방위원한테 제출 못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출해주세요. 그렇게 해 줄 것입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합심조 결과에 대해서는 국방위에 보고드린다 안 드린다 하는 것은 저한테 정식으로 요구했으면 아마 이미 했을 것입니다. 아마 실무자들이 잘 모르고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백승주 위원 지금 요청할 테니까 합심조 조사 결과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경대수 백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제가 국방개혁 2.0에 대해 물론 4월에 자세한 계획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보기에는 아직까지 무엇이 새로운지 명료하지는 않다, 사실 여기 수록된 대부분의 핵심과제들은 제 기억으로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1999년에 나온 국방개혁 2015, 즉 국방기본정책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거의 과반수가 넘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주제들이거든요.

그러면 달라진 시대상에 맞추어서 무언가 우리 국방을 근원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과 아이디어가 조금 더 명료하게 드러나 주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전략개념 몇 개가 아

나라 우리 부대구조와 국방운영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에너지로 충만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 바람인데……

우리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빅데이터로부터 인공지능 로봇 이런 여러 가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사회가 예견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국방의 이런 4차 혁명의 기술개념들을 고민하는 부서는 과연 어디인가, 이 개념을 만드는 단위는 과연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저회 군도 있고 어제든 그런 토의를 많이 해서 ADD에서 새로운 기술, 뒤따라가는 기술이 아닌 앞서가는 기술을 개발하려고 지시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방위사업청 보고에도 일부 있습니다. R&D 부분에도 나와 있고 ADD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ADD나 방사청은 뭐냐 하면 획득과 개발에 관한 주무부서이고 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무기개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방운영의 전 부분을 지능화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ADD 업무만이 될 수는 없겠지요. 소요군 업무만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범 국방 차원에서 거시적 안목에서 개념을 고민할 때지요.

장관님, 4차 산업혁명의 군사적 버전을 미국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

○국방부장관 송영무 CNAS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3차 상쇄전략이라고 합니다. Third Offset Strategy라고 하지요. 그런 개념들이 군사적인 의미의 새로운 상쇄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한국화된 독창적 개념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합적으로 고민하는 단위가, 그 두뇌체계가 국방에 없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국방을 혁신하는 우리 전략가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결함이라고 판단해요.

그 점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 20년 전과 똑같은 가락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노래를 불러야 되는, 혁신 쪽으로 우리가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나중에 김종대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대수 간사, 김학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대 위원 이 얘기는 꼭 한번 저하고 나눠

주시기 바라고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김종대 위원 한-UAE 간에 2009년에 체결된 상호방위협정이 매우 초헌법적인 절차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에 적당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거기에 자동개입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을 통해서 다 확인된 사항인데 문제는 그 자동개입 조항을 어떤 방법으로 구현해 내느냐, 그 이후에 체결된 6건의 양해각서와 이 협정이 하나의 패키지를 이루면서, 제가 파악하기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UAE 연합 군사지휘기구, 군사기구 창설, 두 번째 공동작전계획 수립, 세 번째 유사시 파병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후속조치로 차곡차곡 채워지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형제국이 되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는 문제가 된다면 수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를 다루는 주무부서는 어디가 되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입니다.

○김종대 위원 외교부는 아닙니까? 이 협정은 외교부장관이 체결했어요. 그러면 전 부처 차원에서 최소한 국방·외교부 간에는 문제점을 식별하고 개선할 수 있는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하시기 곤란합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헌법에 관한 사항은 국가 간의 외교 문제를 초월해서 우리 주권과 안보에 관한 중대한 현안이고 이 문제가 어물쩍 넘어간다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군사기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품격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정상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김정섭 기초실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예산과 관련해서만 집중적으로 묻겠습니다.

장관님, 논산훈련소를 가 봤더니 말하자면 식

당을 4교대를 합니다. 12시 반부터 1시 반에 식사를 하는데 15분씩 식사하고 청소하고 식기도 닦고 그다음에 가서 준비해야 되는데 첫 번째 들어간 사람은 45분을 쉴 수 있지만 뒤에 들어간 사람은 앞에 45분 기다렸다가 밥을 먹기 때문에 휴식도 준비도 없습니다. 고쳐야 되겠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이정현 위원 기초실장, 내년 예산에 이거 꼭 설득력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논리를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정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논산훈련소를 가 봤더니 아직도 온돌방이 아닌 히터를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히터 옆에 자는 병사들은 더워서 이불을 걷어차고 히터 멀리 있는 병사들은 추워서 폐렴이 걸리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온돌을 쓰는 데는 폐렴 걸린 숫자가 73, 42, 90, 80, 33인데 27연대나 30연대 같이 히터 저쪽 끄트머리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은 178명, 108명이 폐렴에 걸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알겠지요? 이것을 이렇게 미루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군 사기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정섭 예.

○이정현 위원 그냥 불러낸 것이 아닙니다.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정섭 생활관 난방 문제는……

○이정현 위원 알겠고, 이따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장님을 앞으로 불러낸 이유,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이렇게 놔두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해요.

특전사는 일당천으로 싸운다는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이 특전용사들은 말하자면 정말 굉장한 승부욕을 갖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장구들을 사재로 사서 씁니다. 그리고 옆의 용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돈을 빌려서 하게 되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전투 중심으로 많이 하고 신작 전개념 말씀하시던데 말로 하지 말고 특전사 개인 전투장비 보장하는 것, 전부 내용 파악해 갖고 확실하게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이정현 위원 707 대테러특수부대도 마찬가지로 특히 이번에 만들어서 작년 12월 달에 출범했던 특임여단, 무전기라든가 제대로 된 장비도 갖춰 주지 않고 국민들한테 3축 3축 하는데 이것 꼭 갖춰 줄 수 있으시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고개를 끄덕임)

○이정현 위원 다른 부대들도 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해병대들이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수송용·공격용 상륙기동헬기 추가로 요청한 것 아시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최우선으로 먼저 추진……

○이정현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년에 이 예산을 꼭 보내는 주시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국방부에 해병대에서 장군이 몇 명 나와 있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한 세 명 나와 있는데……

○이정현 위원 국방부 안예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국방부 안에는 장성이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국방부에는 한 명도 없잖아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없습니다. 함참에만……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국방부 내에서 각종 정책이나 군사전략이나 군사력 건설과 관련된 작제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적에 장군 출신들하고 일반 영관급하고 또 다르잖아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이정현 위원 그런데 국방부에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장군 정원과 관련한 종합검토를 해 가지고 저한테도 알려 주시고 다음 번 질의 때도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할 테니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예비군동원사령부를 창설하고 과학화한다고 했는데 훈련은 신형 군장으로 하고…… 신형 군장은 5분 만에 완전히 결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형은 한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정작 전시에 구형으로 하게 되고 훈련은 신형으로 하게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게, 대한민국 군대라는 것이…… 아마 장관님께서도 기가 막힐 것입니다. 이것 내년에 반드시 시정합시다. 할 수 있으십니까? 그런 의지를 갖고 내년 예산에 이것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에 유해발굴단이 있는데 정말 눈물 나고 화가 납니다. 여기에 있는 국방부 유해발굴단을

이제 육본으로 넘긴다든지 아니면 보훈처로 넘긴다든지 이렇게 격하시키려고 하는 것이 국방개혁이라면서요? 지금 미국은 전역한 쓰리 스타가 단장을 하고 원 스타가 현역으로 참여하고 있고 베트남 같은 데는 부총리가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령도 높아 가지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격하시키려고 하는 것이 국방개혁이라니 기가 막힙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것 한번 알아보세요. 어떻게 이 말이 나오게 됐는지 제가 근거 없이 한 소리 아니니까 이것 반드시 저한테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국방부 직할부대에 대해서 조정한다 하니까 겁을 먹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다음에 화생방방호사령부에서 여러 가지 대응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여기하고 의무사령부에 장기 복무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군에 와 있는 의사들이 군대에서 장기 복무할 수 있도록 등록금 보전하는 문제는 꼭 참고해 주시고.

제가 어제 대관령 부대를 방문해 봤습니다. 노로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또 군이 추가 투입되고 또 요즘 AI를…… 우리 호남, 전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군인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장관께서 각별하게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둘러보면서 예산과 관련해서 내년에 더 많이 있겠지만 가서 눈에 띄면서 정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기가 막힌 것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몇 가지만 지적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관님, 한미군사훈련 재개 언제쯤 하게 되고 하게 되는 것인지 이 부분만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통일부장관은 오늘 발표했습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패럴림픽이 3월 18일 날 종료되는데요 3월 18일부터 4월 이전에 한미 양국 장관이 정확히 발표할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하옵는 이정현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논산훈련소 가니까 침상 히터하고 식당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예산을 빨리 태워라’ 해서 태웠는데 기재부에서 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불용예산이라든지 뭐든지 활용해서 금년 내로 이것은 제가 조치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이 비회기 동안에 현장 방문을 많이 하셔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상당히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종명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중로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이종명 위원** 장관님,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메달 사냥을 해 가면서 국민들은 굉장히 들떠 있는, 분위기가 고조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저는 우리 군이 한 역할도 굉장히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고조돼 있지만 올림픽 이후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정부 업무보고 때 ‘북한이 평창동계 올림픽 참가를 명분으로 해서 한미동맹 이완을 가져올 수도 있다,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북이 긍정적으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두 면에 대해서 군은 전부 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명 위원** 부정적으로 했을 때 어떤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다시 도발한다거나 아니면 트집을 잡아 가지고 남북 대화도 끊는다거나 등등의 그런 빌미를 가지고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비해서 남북 간 대화는 어떻게든지 이어 가도록 통일부와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종명 위원** 한미훈련을 재개하면 북이 다시 도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통일부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방부장관님께서서는 국가안보를 위한 한미연합훈련이,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것 자체가 남북 화해모드와 평화에 방해된다고 보는 것인지 장관님 의견을……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또한 말씀만 올리게 되면 언론에서 이상하게 보도하고 국민들의 의식이 이상해질 것 같기 때문에 한미 장관 간에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정시가 될

때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정확하게 다 발표할 것입니다.

○이종명 위원 지금까지 장관님께서 답변한 여러 가지 예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남북 고위급회담 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는데 장관님께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하게 되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회담 의제로 채택해서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저희들은 그것에 대비해서 내용과 만남의 격, 이것을 어떤 단계로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종명 위원 회담의 주 의제는 비핵화……

○국방부장관 송영무 제일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종명 위원 결론은 비핵화로 가겠단?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이종명 위원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보면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으로 줄이겠다 또 병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군의 전력을 질적·양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는 조치인데 이런 것을 동시에, 급하게 꼭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반도에 전쟁이 없어질 것이라고 장관님은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 조건은 전투력을 1.5배 내지 2배 이상 확보한 다음에 병력도 감축될 것이고 또 전투부대에 간부를 확실히 충원한 다음에 병사들을 줄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투력 보강이 우선이지 줄인다는 것이 포커싱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종명 위원 한반도에 전쟁이 없을 것이라기 보다는……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종명 위원 군에서는 어떠한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차원에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래서 전투력을 우선 보강시키고 난 다음에 감축시킬 것입니다.

○이종명 위원 군 무형전력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국방부 조직개편에 보면 국방

교육정책관실을 폐지했습니다. 국방교육정책관실은 교육훈련과 정신전력 이런 무형전력을 강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실을 폐지하고 정책기획관실이나 인사기획관실로 임무들을 이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관님.

○국방부장관 송영무 대단히 우려되는 질문을 하신 것에 저도 동감하고요. 그래서 교육정책관보다 ‘대북정책관’으로 해야 된다는 건의를 수차례 받고 ‘그러면 교육정책이 중요하니까 이것을 정책관실 밑에다 바로 과를 넣어 가지고 죽이지는 마라’, 그런데 인원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국을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이종명 위원 실이 있는 것과 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종명 위원 그런데 실을 줄여 가지고 과에서 역할을 한다? 그 위에 있는 정책관실…… 정책관 여기 나와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정책관 업무에서 비중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우선순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와 우려가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염려하시는 위원님의 충정을 이해하고 교육정책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쏟겠습니다.

○이종명 위원 5·18특조위에서 2월 7일 날 특조위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면서 ‘5·18민주화운동을 육·해·공군 3군이 합동작전으로 진압했다’,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래서 제가 위원장한테 ‘합동작전’이라는 말은 빼야 된다, 그러니까 합동작전에 대한 교리의 정의상, 육·해·공군 전력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하는 개념은 아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 준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종명 위원 합동작전에 대한 새롭게 정립된 개념이 불과 5년, 10년 전이었는데 옛날 30년, 40년 전에는 그런 합동작전 개념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발표한 내용들 중에 진실을 왜곡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장

관님께서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께서도 위원회에 참가한 것에 대해서 ‘무척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장관님, 국방일보 보시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이종명 위원 국방일보 보면—국방일보 2월 12일 자입니다—차관님도 공개 사과를, 장관님도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것이 동시에 나옵니다. 이 기사 내용과는 다르지만 위에 차관님, 장관님 얼굴까지 나오는 기사를 국방일보에 실어 놨습니다.

저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사과하고 또 차관은 ‘무척 잘못됐다’ 그러면 무척 잘못된 것이 뭔지, 무척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것도 없이 이런 내용들이 장병들이 보는 국방일보에 동시에 나란히…… 이것은 우리 군의 사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무형전력, 교육정책관실 없앤 것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장병들의 사기를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들이 국방일보에 실렸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5·18특조위에서 조사한 내용이 굉장히 왜곡된 것같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왜곡보다도 사실에 더 가깝다고 보고받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방부장관으로서 조직에 대한, 그다음에 선배들의 아픈 역사에 대한 사과에서 제가 장병들과 군 후배들한테 전달해 주는 것은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이것으로 끝내야 되겠다, 그다음에 희생당한 분들한테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미안하다 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정신전력을 더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얘기한 거고요.

차관의 얘기는 개인이 참가했기 때문에 개인 자격으로서 자기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같이 사과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볼 때 장병들은 ‘아, 이런 데 참여하면 안 되겠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인식했을 것이고 제가 얘기한 것은 조직과 국방부가 정직하고 국민한테 다가가고 희생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는구

나 하는 것이 국민의 국군으로 다시 인식했으리라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종명 위원 장관님께서 사과한 내용에 대해서, 특조위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 해군의 309편대의 존재 여부, 해병대 33대대, 육군 공군헬기 사격에 대한 조종사들의 증언 이런 것들은 전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결론을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것은 5·18특조위법이 오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데에서 더 추가 확인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로 위원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북한 핵 때문에 묻혀서 실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실무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엇그제 대통령께 복무기간 보고드렸어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복무기간……

○김중로 위원 단축 문제.

○국방부장관 송영무 2월 6일 날 국방개혁 종합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중로 위원 그것 보고 들어가기 전에 국방위에 보고할 생각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국방위에 보고할 생각은…… 그때 제가 출장 갔다 오고 얼마 안 돼 가지고요, 한 이틀 만에 바로 보고했기 때문에 보고가 끝나고 다 국회의원님들께, 빨리 간사님들부터 보고를 드려라 하고 제가 실무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김중로 위원 사후 보고하면 아무 의미가 없을 텐데……

이것 지금 심각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따지자면 한이 없을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장관님께서 정확하게 정말 공약에 맞추어서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은 아닌데…… 봉급 올려 주고 이런 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복무기간 단



축했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봐요. 이것은 무엇하고도 바꿀 수도 없고 나중에 이게 지속되면 문제가 심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장관님께서 특별히 저하고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김중로 위원 K-9 자주포 이것도 뇌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십 몇 년 전에 미국하고 독일에서는 벌써 이 뇌관을 안 써요. 이번에 조사하는데 이런 부분은 전혀, 다른 나라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을 왜 참고를 전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후속 대책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뇌관의 문제가 심각했어요. 장관님 아실지 몰라도 선진국에서 이런 문제가 사건화돼서 이미 그것을 폐기하고 그런 내용들인데, 저게 저렇게 돼 있어요.

시간제한 때문에 다 못 하는데, 다음 방사청…… 자주포 문제도 다시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방사청 한번 봅시다.

기품원 문제인데 기품원장님이 오늘내일 바뀌신다 그래서 차마…… 직접 질문을 해야 되는데 혹시 불량 전투식량 문제 들어 본 적 있어요, 이 문제가 신문에 이미 났는데?

○방위사업청장 전제국 예, 들어 봤습니다.

○김중로 위원 이것 말이지요, 지금 병사들한테 이런 것을 먹여 가지고 하는 업체가 있다면 이것은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일대일 살인보다도 더 흉악한 놈들이에요, 이것은. 안 그래요?

○방위사업청장 전제국 그렇습니다.

○김중로 위원 불량식품하고 공해 문제는 가중 처벌해야 됩니다, 이것은. 전 국민 아니면 군대로 말하면 젊은이들이 와서 군복무하고 나가는데 그간에 이런 것 먹어 가지고 병 생기고 나가면 되겠어요?

저는 놀라웠습니다. 육안으로도 다 보이는 거예요. 저것 보이지요? 찢 것하고 튀긴 것하고 완전히 다르지요?

○방위사업청장 전제국 예.

○김중로 위원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건데 기품원 한 번 검사에 의해서 그냥 육군은 갖다 먹

이는 겁니다. 저게 전투식량이라서 3년간 보관했다가 3년 기한이 다 될 무렵에 먹으면 이게 상합니다.

이것 빨리 조사해서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내가 정말 세세하게 질문하고 싶었는데 너무 시간을 제한받으니까, 이 문제 좀 각별하게 신경 쓰고요.

○방위사업청장 전제국 예, 알겠습니다.

○김중로 위원 기품원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지금 거듭 드리지 않는데 이 문제 반드시 저한테 자세하게 보고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장 전제국 예, 알겠습니다.

○김중로 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병무청 산업기능요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휴식 시간에?

○병무청장 기찬수 예.

○김중로 위원 이 문제도 병무청장님이 깊이 관여를 해야 됩니다. 일단 어떤 연유에서든지 군에 와서 기술요원으로 해서 손 잘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그냥 병무청 실무자들은 나 몰라라 해요. 별 관심이 없어요. 청장님은 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을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연도별로 저것 계속 늘어나요. 2015년에 57명이었는데 지금 113명의 산재가 발생해요. 상당수입니다. 그래도 여기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사회에서 스펙도 좋은 사람 위주로 가는데 이렇게 군에 와서 손 잘리고 나가고 이러면,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오늘 의문사도 법률 통과하겠지만 이런 문제들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내 자식이 지금 군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대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라든가 우리가 관리하는 기관에……

물론 병무청도 지금 어려움이 많아요. 43명이 수만 명을 관리하더라도요. 이것도 부족하면 빨리 얘기를 하세요. 국방비라도 더해서…… 아까 이정현 위원님 해병대 굉장히 사랑하는 의미에서 하시는데 이런 것 전부 심각해요. 43명이 어떻게 3만 명, 4만 명을 관리합니까?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산재를 최소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 보시고 이것 저한테 특별히 와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무청장 기찬수**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후속 조치를 관심을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중로 위원**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장관님도, 지금 핵 문제다 이런 외부적인 문제에 너무 신경 쓰다가 내부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오늘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딱 7분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다잡아 주시지 않으면 먹는 것, 입는 것, 비무기체계에 대한 문제가 지금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군수 계통하고 커넥션된 이런 문제들이 지금 해소가 안 돼요.

장관님, 진짜 이런 걸 개혁해야 됩니다.

장관님, 아시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잘 알겠습니다. 다 적어 봤습니다.

○**김중로 위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그쪽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꼭 무슨 무기체계만 하고 비무기 체계에 대한…… 그것 안 되면 전투 못 해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위원장 김학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점심시간인데 장관님 이하 고생들 많으십니다.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긴급소요 제기해서 도입했던 확성기, 대북 확성기요, 40대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꼭 장관님이 아니시더라도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작년 결산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상임위에서 청구해서 결과도 나왔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이게 160억짜리 사업인데 요지를 간단하게 보면, 이번에 감사원 감사 결과도 그렇고 그전에 군 검찰에서 했던 수사도 그렇고 육군 상사의 단독 범행이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져 있습니다. 이게 160억짜리입니다. 대통령이 북한 핵실험 때문에 긴급소요를 제기해서 상당히 비중 있게 추진한 사업이고 또 예산이 없어서 상용차량 예산에서 빼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게 육군 상사, 실무자인 육군 상사가 혼자 제안서나 평가항목을 조작해서 또 성능평가까

지 업체가 원하는 대로 해 줬다 이렇게 요약하면 정리가 되는데 이런 결과를 수궁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수궁할 수 없습니다.

○**이철희 위원** 없지요?

또 하나요.

제가 좀 기가 막힌데 국방위 와서 이런 일은 안 당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국방부 전력조정 평가과라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이철희 위원** 그게 어디 소속이지요? 전력자원 실장 밑이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전력기획관……

○**이철희 위원** 밑이지요?

거기서 2017년 2월 13일부터 8월 10일까지 자체 평가를 해 보니 이게 요구 성능이 미달한다는 것 확인했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이철희 위원** 그 내용 아시는 분 있나요?

확인했지요? 확인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냥 가부만 대답해 보세요, 크게.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국방부군수관리관 박주경** 예, 확인했습니다.

○**이철희 위원** 확인했지요.

그런데 8월 21일 날 결산심사에서 제가 이것을 지적했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아무 문제없다 그랬어요.

대놓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정말? 대놓고 이렇게 거짓말하실 거예요?

8월 10일 날 평가가 끝나서 성능이 충족이 안 된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 열흘 뒤에 있었던 결산심사 할 때 이것을 지적했는데 문제없다고 답변하는 그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또 하나, 저희가 작년 국정감사 때, 10월 30일입니다. 국정감사 때문에 성능을 보겠다고 직접 운용실태 점검을 나갔지요? 해병대 2사단 갔습니다. 이때도 군이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성능이 충족이 안 된다는 것. 그런데 썩었어요.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문제없는 것처럼 침묵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한 거예요.

국방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현장을 갈 정도가 되면 ‘사실 저희도 해 보니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가 보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조치를 할 테니 그 이후에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국정감사까지 가겠다고 하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속이고, 가셔도 아

무 문제없다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되지요.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국방부가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국방부 검찰단이요 이게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서 고의가 없다고 해서 배임죄를 적용을 안 했어요. 감사원 감사에서도 35억이라는 부당 이익을 업체에 줬다고 확인이 됐어요.

이것 업무상 배임 아닙니까? 왜 상식적인 눈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것들이 군의 시각으로 보면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이것도 엄벌을 취해야지요.

그래서 고작 한 게 뭐냐 하면 주식을 통해서 14만 원, 41만 원의 차익을 봤다, 그게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또 하나요.

이번에 감사원이 감사한 게 기동형 16대만 한 겁니다. 고정형이 24대가 있지요. 기동형이 이 모양이면 고정형도 마찬가지겠지요. 똑같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재미있는…… 재미있다고보다는 놀라운 사실은 납품 시험평가 시에 기술검사관이 본인은 합격 서명을 안 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합격 서명을 안 했는데 합격 처리가 됐습니다. 누가 위조한 것 아닙니까, 이것? 이것 이해됩니까?

법무관리관 나와 계십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노수철** 예.

○**이철희 위원** 잠깐만, 마이크 좀…… 나오셔도 되고요.

이게 2017년 8월에 장기간에 걸쳐 조사가 다 됐고 조금만 확인해 보면, 예컨대 이 증언이 맞다면 본인 서명도 조작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부당 이익도 취했고.

이것은 계약 해지가 맞는 것 같고 그다음 부당 이익을 환수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어설픈게 생각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데는 법무관리실인 것 같은데 왜 이게 안 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동안?

감사원 감사가 있기 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에서 아무 것도 안 했습니다. 왜 그런 겁

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노수철** 국방부에서 확인한 사항을 기초로 해서 업무 처리를 한 것 같은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해서 업무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철희 위원** 아니, 그 전에 자체 감사에서도 이미 요구 성능을 충족 못 한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감사원 감사 기다릴 것도 없잖아요, 자체 결과에서 이미 나왔으면, 그렇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노수철** 예.

○**이철희 위원** 그런데 왜 서로 통보가 돼서 그것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안 취하는 것이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노수철** 해당 부서에 그런 업무 처리를 해야 한다고 저희들은 통보를 한 사실이 있는데 감사원 결과 더 많은 것이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됐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철희 위원** 아니, 그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법무관리실이 부당하게 임무를 해태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언뜻 이해하기에는 이런 일들이 확인이 되면 법적인 문제는 법무관리실이 나서서 계도를 하든지 가이드를 하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행위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게 법무관리실로 제대로 통지가 안 됐다 그러면 그 해당 과가 속인 것이지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이는 게 만연해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과잉으로 이해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한 것을 장관님이 필요하면 더 엄격한 수사를 해 주시고, 혹시 저한테 따로 보고할 일이 있으면 보고하셔 가지고 제가 좀 과잉으로 이해하고 있다,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법무관리관 노수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한 부서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가 다 걸쳐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전반적으로 특검 같은 조직을 해서 수사를 다 하고 뒤에 뒷배경이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해서 적법한 절차를

취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박준영·정인화·윤영일·최운열·김관영·천정배·최도자·이동섭·김광수·이용주·송기석·박선숙·오제세·박지원·조배숙·김한정·채이배·김경진·이태규·박영선·이찬열·김삼화·오세정·김종희·김수민·최경환(국)·최명길·김성식·신용현·강창일·김상희·노웅래·장정숙·권은희·손금주·정동영·이상돈·황주홍·김중로·추혜선·김종민·심재권·유성엽·장병완·박주선 의원 발의)(계속)

**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강훈식·권미혁·권은희·기동민·김경수·김경진·김경협·김관영·김광수·김동철·김병욱·김삼화·김성식·김수민·김종대·김종희·김중로·김한정·김해영·김현권·남인순·노웅래·노회찬·민병두·민홍철·박광온·박선숙·박영선·박용진·박주민·박주선·박주현·박준영·박지원·박홍근·서영교·설훈·소병훈·손금주·송기석·송옥주·신경민·신용현·안민석·오세정·오영훈·오제세·원혜영·위성곤·유성엽·유은혜·윤관석·윤소하·윤영일·윤후덕·이훈·이동섭·이상돈·이언주·이용득·이용주·이용호·이원욱·이인영·이찬열·이태규·이해찬·인재근·장병완·장정숙·정동영·정성호·정양식·정인화·정춘숙·조배숙·조승래·주승용·채이배·천정배·최도자·최명길·최인호·추혜선·하태경·황희·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3.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강병원·강창일·강훈식·고용진·권미혁·권철승·금태섭·기동민·김경수·김경협·김두관·김민기·김병관·김병기·김병욱·김부겸·김상희·김성수·김영주·김영진·김영춘·김영호·김정우·김종민·김진표·김철민·김태년·김한정·김해영·김현권·김현미·남인순·노웅래·도종환·문희상·민병두·민홍철·박경미·박광온·박남춘·박

범계·박병석·박영선·박완주·박용진·박재호·박정·박주민·박찬대·박홍근·백재현·백혜련·변재일·서형수·설훈·소병훈·손혜원·송기현·송영길·송옥주·신경민·신동근·신창현·심기준·심재권·안규백·안민석·안호영·양승조·어기구·오영훈·오제세·우상호·우원식·원혜영·위성곤·유동수·유승희·유은혜·윤관석·윤호중·윤후덕·이상민·이석현·이수혁·이용득·이원욱·이인영·이재정·이종걸·이철희·이춘석·이학영·이해찬·이훈·인재근·임종성·전재수·전해철·전현희·전혜숙·정성호·정재호·정춘숙·제윤경·조승래·조용천·조정식·진선미·진영·최운열·최인호·추미애·표창원·한정애·홍영표·홍익락·홍익표·황희 의원 발의)(계속)

**4.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천정배·이동섭·박정·박준영·윤영일·송기석·윤소하·위성곤·최경환(국)·주승용·원혜영·이원욱·박홍근·김경진·김중로·박주선·장병완·이용주·정인화·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5.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권은희·김관영·손금주·오신환·이언주·이찬열·이혜훈·정병국·정운천 의원 발의)(계속)

**6.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13시03분)

○위원장 김학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의사일정을 바꿔서 아까 미뤄 왔던 5·18 관련 법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회 시간에 양당 간사 간에 합의를 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본 내용을 기초로 해서 법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의 내용을 수정 통합한 제6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을 반영하기로 하였으므로 수정하기로 한 사항까지 포함을 해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내용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 부분에 있어서, ‘의혹사건’에 있어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3조(진상규명의 범위)에 있어서는 제6항을 신설해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 이렇게 새로 추가를 했어요.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에 있어서 제2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9명, 그 9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었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 이것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수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수정 내용을 담아서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장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총칙 관련 규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제2장 4조부터 제21조까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관련 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의견 있습니다.

지금 위원 구성에 관련하는 의견을 말씀하라는 얘기셨지요?

○위원장 김학용 예.

○서영교 위원 그동안 5·18 관련해서 이제 진실을 완전하게 정리해야 되는 시점인데 사실 국회의원들이 냈던 법률안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방위 소위에서 통과시켰던 안에도 그렇고 기존에 해 왔던, 거의 모든 관례대로 해 왔던 특위 구성, 특위 위원 구성요건에 맞춰서 대통령 4인 추천 그리고 대법원장 4인 추천 그리고 여야 3인 추천, 여야 4인 추천씩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냈었고 그 의견이 통과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다시 안이 나오니 저의 주장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잘 알겠습니다.

소수의견으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3장 제22조부터 제43조까지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관련 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계속해서 제4장 제44조부터 제54조까지 조사결과에 대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 관련 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계속해서 제5장 제55조부터 제65조까지 보칙 관련 규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계속해서 제6장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벌칙 관련 규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끝으로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관련 특별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전체회의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해서 수정 통합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최종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업무보고(계속)

### 가. 국방부 소관

### 나. 병무청 소관

### 다. 방위사업청 소관

(13시06분)

○위원장 김학용 이어서 아까 중단되었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위원 장관님, 저는 우리 군이, 우리 국방부가 좀 더 의연하고 당당하고 솔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이나 국방부가 마치 정무적인 판단이나 저울질을 하는 모습으로 비쳐진다면 이것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기무사에서 정치 중립 준수 선포식이라

그래서 그 추운 날 장병들 모아 놓고 세숫대야에 다 물 받아 놓고 씻은 물에 또 씻게 하고 이게 뭐하는 짓인지 그 비난 여론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런 것 하지 말자 이거예요.

정치 중립 해서 군 본연의 임무를 다 하면 되는 것이지 꼭 그렇게 보여주기식으로, 또 기무사라는 데가 보안을 요하는 부서인데 TV 카메라에 나와서 전부 얼굴 비치고 이런 것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비공개 때 얘기한 것, 이번 2월 8일 평양광장에서 열린 건군절 열병식에서 우리의 현무미사일이 등장했다는 것은 장관님도 인정하셨지만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올림픽 앞두고 마치 북한에서 배려해 가지고 자기의 열병식을 축소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국민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작 결과가 어땠습니까? 올림픽 개막식 날 북한은 역대 보이지 않았던 가장 위력적이고 호전적인 새로운 무기체계를 선보인 것 아닙니까? 미국의 미사일 체계가 세대교체 되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공개한 것 아닙니까? 우리를 조롱한 거예요, 개막식 전날. 우리 군은, 우리 국방부는 이것을 쉬쉬한 겁니다, 혹여 올림픽 평화 무드에 찬물을 끼얹을까.

국민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누구도, 등장한 미사일 중에 현무미사일이 있다는 것은 전문가 아니면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군은 알았을 거예요.

장관께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아까 인정을 하셨고 그 열병식이 알려진 것 같은 그런 열병식이 아니었고 가장 호전적이고 위력적인 신무기체계를 보여 준 열병식이었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지 못해요. 왜? 우리 군이 일절 얘기를 안 하니까.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사실관계, 상황 인식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장관께서 ADD로 달려가셨지 않습니까? 기존에 무슨 예약이 돼 있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장관께서도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 열병식의 상황을 굉장히 신중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신 겁니다.

북한의 열병식 광장에서 우리의 현무미사일이 등장했다는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처음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현무미사일이 무엇입니까? 언제 개발됐어요?

1988년도에 최초의 서울올림픽을 만일 북한이 방해하면 평양을 때리겠다는 용도로 개발한 것이 현무미사일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지요?

바로 그 현무미사일을, 개량형을 우리 두 번째 올림픽 개막식 전날 공개하고 퍼레이드에 등장시킨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한껏 조롱의 퍼레이드를 벌인 거예요. 그것을 무슨 뭐…… 게다가 ICBM 화성-15호까지.

저도 제보를 받은 겁니다, 군사 전문가들한테. 어떻게 2월 8일 평양 열병식이 축소하고 배려한 듯한 얘기가 나오느냐? 역대급의 가장 강력하고 위력적인 신무기체계를 선보인 열병식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군이, 우리 국방부가 좀 더 국민들 앞에 의연하고 당당하고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저는 국민을 대신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의견을 피력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아니, 한미 합동군사훈련 재개를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 알아서 해석해서 이해해 달라? 어떻게 정부의 입장을 국민들이 일일이 해석을 해서 그것을 알아차려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올림픽 끝나면 재개하겠다’ 왜 얘기를 못 해요? 동맹이 있으면 훈련이 있는 겁니다. 그걸 국민들한테 어렵게 교묘하게 얘기하면서 ‘이것을 해석해서 알아차려 달라’ 이런 정부의 답변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국방부는, 우리 군은 좀 더 의연하고 당당하고 솔직하게 국민과 마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학용 답변하시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마치 북한이 퍼레이드 한 것이 우리 현무 유도탄하고 형상은 비슷하고…… 유도탄은 모든 나라의 것들이 형태가 나중에 보면 거의 엇비슷한데 그것이 현무를 갖다 봤다 하는 말씀은 좀 과하신 말씀 같고요.

국방부는 항상 당당하고 정직하고 북한에 대해서 대비태세를 항상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이 퍼레이드를 했다고 해서 저희들은 언론에 보도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한미 공조해서 정확하게 정보 판단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훈련에 대해서도 알아 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미 간에 확고한 공조태세에 대해서 발표할 때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수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새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경제적인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장관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세이프가드라든지?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경대수 위원 언론보도를 보면, 한미동맹에 따른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이랄까 이런 데 우리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미온적으로 나가고 불안하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미국이 안보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장관님 읽으신 기억이 있으시죠?

○국방부장관 송영무 읽고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런데 아베 일본총리가 와서 우리 대통령께 ‘한미 군사훈련을 평창올림픽이 끝나면 바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내정간섭적인 발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 ‘그런 발언은 내정간섭적인 발언이니까 적절치 않다’ 이렇게 반박한 기사가 또 난 적이 있습니다, 장관님.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경대수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존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기가 고조되었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끝까지 미국처럼 믿고서, 일본도 우리의 입장을 지지할 거라고 계속 확신하시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동맹에는 한미동맹은 있지만 한일동맹은 없었습니다.

○경대수 위원 동맹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주권의 측면에서 보면 헌법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의 군사력이 우리를 지키는 데, 방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위치에 있지만 우리 국민 감정상 일본의 군사력이 우리 땅에 발을 들여 놓는 것은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맞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리고 한국의 동의 없이 일본의 군사력이 전개되는 것도 우리는 동의할 수 없는 거고.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경대수 위원 그런데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다시 말씀드리어서 한국의 동의가 필요한 지역을 한반도 전체 또 부속도서인 독도까지 인정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독도는 자기들이 얘기하는 다케시마라고 판단해서 자기들 영역이라고 판단하고 또 휴전선 이북은 한국의 실효적 지배가 없으니까 김정은이 점거하고 있는 북한지역이나 독도에서 미일동맹 차원에서 군사력을 전개하는 데는 한국의 동의가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나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독도 문제라든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헌법상의 가치기준이기 때문에 강력히 항의하고 그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항의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서야 될 것 같은데?

○국방부장관 송영무 동방 계획이 구비돼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것이 일본과 대립각만 세워 갖고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경대수 위원 지금 한일 관계가 점점 나빠지고 있고 일본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움직이는 골대라서 도저히 어디에 맞추고 합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이것은 군사외교로 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군사외교로서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이 클라크에서 회담할 때 방금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께서 질문한 그런 양상이 빚어져 가지고 일본 방위상으로부터 유감의 뜻을 받았습니니다.

○경대수 위원 하여간 그 부분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경대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 보겠습니다.

지금 주한미군에 대한 분담이 우리가 한 1조 가까이 되는데 총액형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을 소요형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건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총액형이 유리할지 소요형이 유리할지는 우리가 외무부하고 실무자끼리 전략회담을 하는데 아직 확정은 시키지 않았습니니다.

○경대수 위원 총액형의 단점이랄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적절치 않은 게 건설비나 이런 것을

예치해 놓고 사용 안 하는 게 4000억 가까이 미국이 갖고 있는데 그것도 투명성이 없으니까 소요형으로 바꾸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소요형으로 되었을 경우에 실제 더 많으면 더 많이 분담할 위험성도 있고……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렇습니다.

○경대수 위원 또 지금 사드까지 비용도 방위비 분담 차원에서 우리가 부담하라 이런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없나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총액형으로 할지 또 그 사용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경대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 순서인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병력 감축 이야기가 있으면서 북한은 병력이 많은데 우리는 병력을 감축하는 게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첨단무기화하고 군 병력을 정예화하겠다’ 그리고 ‘예비군을 정예화하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요, 첨예화된 무기와 정예화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배낭 메고 행군하면서 고지 전투한다, 야전삽 갖고 고지 전투하는 이런 전쟁의 형태는 지나갔다. 따라서 항상 기동을 우선으로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유도탄으로 적의 주요 표식을 다 무력화시키고 그다음에 항공전력으로서 헬기라든지 전투기 등등을 가지고 지상군을 100% 지원하는 전투를 할 예정입니다.

○서영교 위원 우리의 청년 숫자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병력은 감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방부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북한에서 핵실험을 성공시키고 ICBM을 성공시켜 내는 것처럼 보이면서 ‘북한은 무슨 돈이 있어서 저렇게 미사일을 쏘 대지?’ 그리고 ‘언제 저렇게 개발을 했지?’ 그리고 ‘언제 저렇게 완공했지?’ ‘그러면 우리가 불안한 것 아니야?’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군을 믿고 따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들갑

을 떨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불안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첨단화되어 있고 정예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수시로 보여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 면에 있어서 이번 국군의 날 행사에 모든 것을 오픈시키자고 해서 많이 보여 드렸고요, 실제 상황을 좀 더 국민들이 알게끔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꼭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한쪽이 불안한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 불안한 것을 현 정부가, 현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그것을 채워 주셔야 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군의 B-1B가 그리고 미군의 F-35가 우리 한반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이 긴장한 것들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약간의 대화의 방향으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과 계속되는 대화를 통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첨단무기들을 한반도에 수시로 상시 배치할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국방부장관께서 미 국방부장관과 대화가 잘되시는 것 같아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 면은 조금 인정합니다.

○서영교 위원 예,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계속 헐뜯고 싶어 하지요. 한미공조, 한미동맹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우리 국방부장관께서 호탕하게 미 국방부장관과 그리고 미군 관계자들과 대화를 잘하면서 미군의 첨단무기들이 상시 순환배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고맙다 하시고 더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이에 방위사업청장님께서서는 우리의 무기들을 첨단화하게 만들어 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전제국 예.

○서영교 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군의 날 때 우리가 모든 걸 보여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F-35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DDD 1000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미군과의 공조를 통해서 첨단무기들을 상시 순환배치시켜 내고 그 사이에 우리 방위력을 개선해 나가는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방부 예산을 좀 더…… 지금까지도 많이 늘려 놓



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 정부 들어와서 방위비를 좀 더 올리고 방위력 개선을 하기 위해서 무기 개발을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쪽에서 미사일을 뿔뿔 쏘는데 우리는 미사일을 뿔뿔 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미사일을 뿔뿔 쏘는 것은 못 하지만 그 미사일을 충분히 요격해 내거나 주요 타격을 타격할 수 있는 훈련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준비되고 있는 건가요? 방위사업청장님께 질문합니다.

**○방위사업청장 전제국** 저희들은 무력시위와 관련해서 국방부나 합참이나 전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원하는 소요되는 무기체계를 적기에 개발해서 공급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무기와 같은 것을 전시하는 문제는 저희들 소관을 벗어나는 문제인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체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영교 위원** 그 시스템을 갖추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 전제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철희 간사께서 사전조사를 통해서 추가질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는 오는 3월 5일 월요일 오전에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하여 현충탑을 참배하고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을 방문하여 유해감식 현장을 시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이철희 위원님, 김중로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성실히 답변서를 작성해서 2월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영무 국방부장관님, 기찬수 병무청장님, 전제국 방위사업청장님과 각 산하기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각 의원실 보좌관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이 페럴림픽 이후인 3월 18일 이후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걱정을 없애는 가장 큰 포인트는 역시 굳건한 한미동맹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송영무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공조를 통해서 북한이 바라는 것처럼 한미공조의 간격을 넓히고 주한미군 축소 철수 그리고 대한민국 적화통일이라는 북한의 아주 끊임없는 그런 생각이 절대 통하지 않도록 우리 국방부에서 만반의 태세와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관계로 점심도 못 드셔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구내식당에 알아보더니 밥이 다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라면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국방부 관계자들도 시간이 마땅치 않으니까 모든 분들 가지면 다 라면 드실 수 있게끔 2층 구내식당에 준비했으니까 다 드시고 가지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경대수	김동철	김병기	김중대
김중로	김진표	김학용	백승주
서영교	우상호	이정현	이종걸
이종명	이철희	정진석	진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전문위원	김남곤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방부			
장관	관	송영무	
국방정책실장		여석주	

기 획 조 정 실 장 김 정 섭  
 인 사 복 지 실 장 이 남 우  
 전 력 자 원 관 리 실 장 박 재 민  
 군 구 조 · 국 방 운 영 개 혁 추 진 실 장 김 윤 태  
 기 획 관 리 관 윤 영 모  
 계 획 예 산 관 유 균 혜  
 정 보 화 기 획 관 권 혁 진  
 정 책 기 획 관 허 태 근  
 국 제 정 책 관 최 태 형  
 대 북 정 책 관 박 인 호  
 동 원 기 획 관 노 회 준  
 보 건 복 지 관 권 영 철  
 군 수 관 리 관 박 주 경  
 군 사 시 설 기 획 관 박 승 흥  
 전 력 정 책 관 권 혁 민  
 군 구 조 개 혁 추 진 관 조 상 호  
 국 방 운 영 개 혁 추 진 관 양 용 모  
 감 사 관 김 성 준  
 법 무 관 리 관 노 수 철  
 군 공 항 이 전 사 업 단 장 김 윤 석  
 주 한 미 군 기 지 이 전 사 업 단 기 획 지 원 부 장 김 윤 석  
 한 국 국 방 연 구 원 장 노 훈  
 병 무 청  
 청 장 기  
 기 획 조 정 관 김 찬 수  
 병 역 자 원 국 장 김 태 화  
 입 영 동 원 국 장 홍 승 호  
 사 회 복 무 국 장 권 병 태  
 방 위 사 업 청  
 청 장 전 제 국  
 사 업 관 리 본 부 장 강 은 호  
 계 약 관 리 본 부 장 손 형 찬  
 기 획 조 정 관 김 태 곤  
 감 사 관 김 영 신  
 방 산 기 술 통 제 관 김 병 부  
 방 위 사 업 감 독 관 조 상 준  
 획 득 기 획 국 장 서 형 진  
 방 산 진 흥 국 장 김 일 동  
 한 국 형 전 투 기 사 업 단 장 정 광 선  
 차 세 대 잠 수 함 사 업 단 장 정 일 식  
 계 획 운 영 부 장 강 천 수  
 지 휘 정 찰 사 업 부 장 김 중 출  
 기 동 화 력 사 업 부 장 엄 동 환  
 합 정 사 업 부 장 문 기 정

항 공 기 사 업 부 장 김 정 한  
 계 획 지 원 부 장 이 정 용  
 무 기 체 계 계 약 부 장 남 동 우  
 원 가 회 계 검 증 단 장 김 형 택  
 국 방 과 학 연 구 소 장 남 세 규  
 국 방 기 술 품 질 원 장 이 헌 곤

○의안 회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  
 (2018. 1. 31. 이종명·김성찬·조훈현·박찬우·김학용·김규환·조경태·김선동·김종석·신상진·신보라 의원 발의)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  
 (2018. 1. 31. 이종명·김성찬·조훈현·박찬우·김학용·김규환·조경태·김선동·김종석·신상진·신보라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일 회부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2018. 2. 2. 최도자·이찬열·주승용·김삼화·신용현·채이배·이동섭·김경진·정성호·최경환(국) 의원 발의)  
 2월 5일 회부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2018. 2. 9. 이철희·기동민·김영호·김정우·김종대·노웅래·박정·심기준·윤관석·임종성·정성호·최도자·한정애·유동수 의원 발의)  
 2월 12일 회부됨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  
 (2018. 2. 12. 김종대·심기준·정성호·민홍철·김중로·황주홍·김영호·이수혁·심상정·윤소하·추혜선·노희찬·서영교·이정미 의원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2018. 2. 12. 이철희·김영호·박정·최도자·김종대·노웅래·윤관석·한정애·김정우·심기준·정성호·임종성·기동민·남인순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3일 회부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2018. 2. 13. 이철희·김영호·김종대·노웅래·윤관석·한정애·심기준·유동수·정성호·기동민 의원 발의)  
 2월 14일 회부됨

## ○관련의안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 발의)

(2018. 1. 30. 채이배·권은희·김경진·김삼화·김성수·신용현·심기준·오세정·이동섭·이태규·조경태·하태경·황주홍 의원 발의)  
1월 3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2018. 2. 9. 김해영·이찬열·윤호중·박용진·박광온·박홍근·문희상·권철승·최인호·조승래·전재수 의원 발의)

**신원조사기본법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2018. 2. 9. 강석호·김정재·이완영·임이자·원유철·정유섭·이헌승·문진국·윤상직·송희경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